논어 3편 팔일 25장 · 원문·풀이

子謂韶：「盡美矣，又盡善也。」謂武：「盡美矣，未盡善也。」

독음 · 자위소 진미의 우진선야 위무 진미의 미진선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순임금의 소 음악은 아름다움과 선함을 모두 갖추었고, 무왕의 무 음악은 아름답지만 선함은 다하지 못했다고 평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謂 고할 위 위 / 韶 아름다울 소 소 / 盡 다할 진 진

美 아름다울 미 미 / 矣 어조사 의 / 又 또 우 우 / 善 착할 선 선

也 어조사 야 / 武 굳셀 무 무 / 未 아닐 미 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